

제 2 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공모 당선작품소개

이 글은 당 협회가 '86.7.5 우유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 2 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응모자 3,264편의 많은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화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佳作 7편, 장려상 10편, 입선작 20편 등 총 40편으로 이 번호에는 장려상 10편중 5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註).

나는 우유대장

전남 금곡국민학교
4-1 조 장 흠

1학년 때 까지만 해도 난 우유에 대한 고마움과 중요함을 느끼지도 못했다. 엄마께서 가끔 용돈을 주시면 과자를 많이 사 먹었다. 1학년때는 나보다 작던 옆 집에 사는 현성이가 올해는 나보다 더 컸다. 몇 주전, 체력검사중 키를 재고 나니 선생님께서

“장흠이, 고추 보다도 작네.”

하시자, 아이들이 막 웃었다. 무척 창피했다. 치아검사를 하는데 내 차례가 되었다. 치아검사를 하고 나신 선생님께서,

“조장흠! 충치가 4개야, 4개! 이쯤 잘 닦으도록!”

창피를 무릅쓰고 내 자리에 들어왔다. 현성이는 키도 우리반에서 2번째로 크고 충치도 없었다.

쉬는 시간에 현성이에게 물었다.

“현성아, 너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키가 작던?”

현성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응. 별거 아니야. 군것질하지 않고…….”

하고선 도시락가방에서 우유를 꺼내는 것이었다.

“사탕보다는 우유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준

단다. 건강에도 좋고……. 너도 키가 크고 싶으면 군것질 많이 하지 않고 우유를 아침운동 뒤에 마시면 키가 잘 크는 지름길이야.” 웬지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집에 오는데, 친구들이 마구 놀렸다.

“조 고추, 조 고추…….”

화가 났지만 꼭 참았다.

‘나도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 해 질테니까…….’

하고 굳게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집에 오니 엄마께서 책을 보고 계셨다. 나를 맞으시더니,

“장흠이 오늘 신체검사 했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니?”

“저…….”

“알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 했잖아. 과자 좀 그만 사 먹으라고, 엄마 말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어?”

엄마께서는 위로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돌아 오자마자 누나가,

“엄마 장흠이 영양보충 좀 잘 해 주세요.”

엄마는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하셨다.

“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장흠이를 가운데 두고 조고추, 조고추’ 하고 놀리잖아요. 글썄…….”

“응, 그래서 장흠이가 기분이 안 좋았구나.”

엄마 이제야 아시겠다는 듯이 전화를 우유집에 걸어 우유를 주문하셨다. 나는 얼른 눈물을 그치고,

“엄마, 고맙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드리자, 엄마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균것질할 용돈은 주지 않을 꺼야. 알겠지?”

조금 겁이 났다. 하루에 한번씩은 균것질을 하는 내 버릇이 잘 고쳐질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왜 말이 없지? 우유 신청한것 취소할까?”

그러나, 결심을 했다. 나의 건강을 위해 엄마가 저러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니 우유를 택하는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 우유를 택하겠어요.”

힘차게 말씀드렸다.

그 뒷날부터 내 생활은 무척 변하였다.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아빠, 누나와 함께 뒷 산에 올라 체조를 하고 힘껏뛰어 집까지 내려와 우유를 마셨다. 엄마는,

“우리 잠꾸러기가 훨씬 부지런해 졌네. 우유의 효험이 벌써 왔나?” 하시며 칭찬해 주셨다.

학교에 가서도 기분이 상쾌하고 공부 시간에 공부도 잘 되었다. 싱글병글한 나를 보고 이들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였다.

오전시간이 끝나고 도시락을 먹을 때, 난 일부러 현성이와 같이 도시락을먹기로 했다. 현성이가 우유를 꺼내려할 때 나도 재빨리 우유를 책상위에 놓았다.

현성이는 무슨 일이냐는 듯이 물었다.

“너 언제부터 우유 마시기 시작했니?”

“응. 오늘부터……. 현성아, 나랑 약속할래? 내년엔 누가 더 키가 큰가 내기하자. 응?”

현성이는 처음에 대답이 없었다.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래, 좋아!”

하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도 현성이의 손을 힘 있게 잡았다. 우리의 약속은 맺어졌다.

그 뒤로, 아침마다 꼭꼭 우유를 마시고 아침 체조를 하니 몸이 훨씬 건강해졌다. 그리고, 우리집에선 나를 ‘우유대장’ 이라고 부르기에 까

지 이르렀다. 내년엔 꼭 현성이에게 이기도록 노력 하리라!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만의 우유대장’ 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어린이라고 불리울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

현성이와의 굳은 약속을 또 다시 머릿 속에 되 새겨 본다.

나의 건강과 우유

서울신곡국민학교

4~6 과 수 길

우리집에 아침마다 일찍 찾아오는 사람은 우유배달 아저씨다.

나는 그 아저씨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 나 잠자는 사이 왔다 가시기 때문이다.

일어나보면 우유만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언제나 봐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아무리 매일 마셔도 싫지 않는 맛이다.

엄마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태어날지 한 달 되었을 때 감기가 많이 걸려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먹게됐단다.

엄마 젖을 먹다가 병원에서 우유를 먹는데도 잘 먹어서 병도 빨리 낫아 십오일만에 튼튼한 아가로 퇴원을 하였단다.

집에 와서도 엄마 젖은 싫어졌고 우유만 좋아하게 돼 계속 먹게 되었다.

애기 때는 우량아여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렸고 지금까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

엄마 말씀이

“요즈음 아이들은 옛날에 비하면 키들이 훨씬 크다 하시며 우리 아들도 이렇게 크고 있으니 수길이를 쳐다보면 엄마 아빠는 흐뭇하구나.”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 마음을 알 수 있다.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키가 아주 적으신데 아빠도 작으시니까 그러신다.

“아빠도 우유를 드세요. 그러면 키가 커질거예요.”

“엄마 말씀대로 우유는 건강에 좋다는데 엄마 아빠도 드세요.”

우리 엄마는 항상 불량식품이다, 몸에 해롭다 하시며 무엇이든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게 하고 그런가 하면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단것은 해로우니까 먹지 마라 이것저것 걱정이 심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

그래도 우유만은 우리 엄마 걱정을 덜어주고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우리 식구도 우유로 아침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내 친척 철이네는 아침은 우유와 빵으로 하는데 우리집은 그렇지가 않다.

“엄마 우리도 아침은 우유로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수길아 엄마 아빠는 시골 사람들이라 우유를 먹어 보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렇단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아빠도 잠쉬보시려고 애쓰고 잠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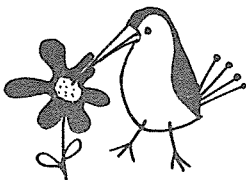
“아빠! 맛있지?”

하며 아빠를 쳐다보면

“음 맛있다.” 하시면서도 약 마시듯 마시는 모습이 우습다.

“이 맛있는 우유를 엄마 아빠는 왜 맛이 없으실까?”

“우리도 건강히 살게 우유를 우리 수길이처럼 맛있게 먹읍시다.” 하시며 요즘은 매일 열심히 드신다.



고마운 우유

서울창서국민학교

6~7 이 한 준

나는 아주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통통하고 귀엽다느니 잘 생겼다느니 하는 말을 들었으나 다섯 여섯살부터 몸이 뻘뻘 마르고 허약해지면서 1년 열 두달 모두 감기에 시달리며 고생을 했었다.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하신 나머지 병원에 나를 데려가서 검사를 해 본 결과 폐결핵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 일은 내가 여섯살때의 일이었다. 1년 동안 약을 먹고 치료를 한 결과 병은 낫았으나 그 후엔 살도 안 찌고 허약 체질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 감기에 시달려 야만했다. 감기에 걸리면 모든 것이 먹기 싫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도 먹기 싫었다.

그래서 더욱더 나의 몸은 말라갈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둘째 누나가 학교 가정 시간에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가 좋다고 배웠다며 어머니께 그 말을 하였더니 어머니께서는 그 때부터 나에게 우유를 먹이셨다.

그동안 내가 먹은 우유는 어떤 것은 너무 싱겁고 어떤 것은 너무 느끼하기도 했다.

여러가지 우유를 바꿔 먹은 결과 내입맛에 맞는 우유를 찾아내게 되었다. 그 우유를 계속 먹으니 감기에 시달리던 내가 거짓말같이 감기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우유를 계속 먹고 어머니께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이젠 모든 우유가 맛 있고 즐겨먹게 되었다.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해 준 고마운 우유는 잊지 못할 것이 되고 말았다.

나는 우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 없는 세상은 건강 없는 세상이 될 거야.
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다 주는 고마운 것이야.”

나는 우유 대장

서울월정국민학교
6~2 심 소 연

내 동생은 아침에 눈만 뜨면
“엄마, 우유 안 왔어?” 하며 밖으로 나간다.
만약 밖에 우유가 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단
번에 꿀꺽꿀꺽 마시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러지 못한다.
“이상한 애야, 완전히 비정상적이라고.” 하며
오히려 내 동생을 구박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런짓 좀 하지 마!”
그러면 내 동생은
“나는 언니가 더 이상하다!” 하며 문을 팡닫
고 들어가 버린다.
어머니께서도 항상
“네가 왜 키가 안 크는 줄 알아?
우유를 안 먹기 때문이야.” 하시며 억지로 우
유를 내 입에 넣어 주신다.
어머니께서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나만 학
교에서 신청하여 친구들과 같이 먹게 했지만 나
는 번번히 도로 가지고 오기가 일쑤였다.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다.
그 날은 유난히 2시간 동안이나 체육을 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어휴 애들아! 물 있는 사람.”
여기 저기서 물을 찾았다.
그러나 토요일날 물을 가지고 온 애가 있을턱
이 없었다.

참기가 어려웠다. 수도물을 먹으러 가는 애도
있었지만 어떻게 수도물을 먹는단 말인가?

그때였다.

“우유 가지고 왔다!” 하는 친구의 목소리
가 들렸다.

얼마나 고마왔는지 모른다.

우유라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나였지만
당장 뛰어가서 우유를 가지고와 단번에 삼켜 버
렸다.

내 짝이

“조금만 줄래?” 하고 사정해도 주지 않았다.

이상했다. 맛이 없는 줄 알았던 우유가 굉장
히 맛이 있는 것이었다.

다른 때 내 짝이 우유를 달라고 그랬다면 얼
른 쥐 버릴 텐데…….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네가 웬일이냐? 우유를 안 가지고 올 때가
있고……. 또 짝 쥐 버린 것이 아냐?” 하고 짹
짹 놀라셨다.

“아니예요. 엄마, 알고 보니 우유는 참 맛이
있던데요. 오늘은 30초도 안 되어서 다 먹었어
요.”

나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다.

“정말이냐?”

“예”

다음 날 아침이었다.

“우유 왔어요.” 하는 우유 배달 아저씨의목소
리에

“예”

하고 나는 뛰어 나갔다.

“못 보던 아인데 누구예요?”

“우유를 새로 신청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번에 우유를 꿀꺽 마셔
버렸다.

뒤따라 오던 동생이

“언니! 내가 항상 우유를 제일 잘 먹었고 제
일 일찍 우유를 받으러 나왔는데, 이제는 언니

가 먼저 나왔으니 언니가 우유 대장이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응 언니는 우유대장, 너는 부대장!”

나는 힘차게 말했다.

“그런데 언니……. 언니가 내 우유 뺏아 먹

었구나?”

동생의 시무룩한 말에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미안해. 그렇지만 언니는 우유 대장 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 우유 부대장 미안하다. 알겠나?”

우리집은 우유가족

서울명지국민학교

3-2 이 안 구

조용한 우리 집에 아침부터 작은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은 우유 때문에 일어난 우리 삼남매의 다툼다.

“어, 누가 내 우유 가져 갔어?”

“엄마, 오빠만 두 개 먹는대요.”

“홍, 네가 참견할 일이 아냐.”

그 때, 어머니께서 나오시며

“애들아, 그만 좀 싸워라. 먹는 걸 가지고 싸우면 바보야.”

그러면 우리들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피이, 하지만 오빠만 2개 먹어요?”

“그리고 내 우유도 없어졌어요.” 하며 또다시 떠든다. 어머니께서

“너희들 조용히 못 하겠니?”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신다. 오빠는

“메롱, 하하하!”

하고 웃으며 학교에 가 버린다. 나는 그 모습이 알밋다. 하지만 할 수 없다. 오빠는 나보다 힘이 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좋아해서 싸우는 우리 집은 이층에서 공부를 할 때도 쪼르르 내려와서

“엄마, 아니 어머니, 헤헤, 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고 아양을 부리며 말할 때 어머니는 미리 아시고

“응, 그래, 우유 사 달라고 말하려고 그러지, 그렇지?”

하며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우리 어머니는 달다.”

하며 온갖 아양을 부린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애, 이제 아양 좀 그만 부려라. 그리고 우유는 웬만큼 먹어야지,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 더 사 주지.”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앗호, 성공이다. 작전 대성공! 참 어머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부탁드릴요. 헤헤헤.”

하며 번개같이 뛰어가 우유를 사 가지고 와서 각자 자기 우유를 들고 마신다.

“꿀꺽꿀꺽.”

맛있는 우유를 마시며 생각한다.

“역시 우리 집은 우유 없이는 못사는 우유 가족이야.”